

주차난 해소 언제?...공영주차장 조성 '차일피일'

자켓값 상승·예산 부족에 지연...송정주차타워 준공 연기 검토 양동 공영주차장 착공 늦춰지는 등 광주 전통시장 차질 잇따라

광주시 곳곳의 상습 주차난 지역에 대규모 공영 주차장이 조성되고 있으나, 자켓값 상승과 자재 수급 불안정, 예산 부족 등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에 조성 중인 송정주차타워 준공일을 내년 3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송정주차타워는 송정역 제2주차장 자리에 7층 규모로 세워지는 주차타워로 총 주차면수는 1580면이다. 지난해 6월 제2주차장을 폐쇄하고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준공일인 오는 31일까지 3주도 채 남지 않은 현재 송정주차타워 공정률은 80%에 머물고 있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 10월로 계획했던 준공일을 12월로 한 차례 미룬 바 있다. 당시에는 지난 1~2

월 동절기에 작업이 일시 중단된데다 철강재 가격이 올라 자재 수급이 불안정해졌다는 이유를 댔다.

코레일 관계자는 "대중 '송다', '한남노' 등이 났거나 비가 많이 올때마다 공사를 멈춰 공정이 늦춰졌다"며 "최근 화물연대 파업으로 레미콘 수급이 안돼 6, 7층 바닥 콘크리트를 채우지 못했고, 그만큼 전기·통신·소방 설비 작업도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공기 연장 여부를 이번 주 중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광주시 서구도 양동 공영주차장을 당초 계획보다 2년여 늦춘 내년 1월 착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준공일은 지난해 12월에서 내년 10월로 늦춰졌다.

그나마도 당초 계획했던 지상 4층·주차 면수

170면 규모가 아닌 지상 3층·125면 수준으로 축소해 짓기로 했다.

자켓값 상승으로 인한 예산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당초 서구는 국비, 시비, 구비 등 총 95억원 예산을 마련했으나, 실시설계 과정에서 철근 등 자재비 상승으로 예산 13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구는 지난달 광주시에 예산 추가 지원 요청을 보냈으나, 광주시는 일단 현재 확보된 예산만 활용해 축소 공사하라는 의견을 내놨다. 일단 주차장을 준공한 뒤 별도 사업을 통해 4층·157면 규모로 증축하라는 것이다.

또 서구는 학동참사 이후 해체계획서 작성 용역 의무화, 해체심의 의무화 등 해체공사 과정이 복잡해졌으며 양동시장 상인회 요구로 부지 1개 필지를 추가 매입하면서 사업 진행이 더뎠다고 설명했다.

서구는 실시설계 용역을 이달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10월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증축 사업으로 인해 공사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어 개방 시점은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 남구에서 진행 중인 봉선시장(주차면수 106면), 무등시장(120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도 속도를 못 내고 있다.

봉선시장 주차장은 당초 2021년에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올 8월에서야 착공했으며 내년 4월로 준공일을 늦춘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에서는 실시설계 결과 주차면수가 당초 예상보다 적게 나와 설계를 변경하느라 공정이 늦춰졌으며, 사업비 또한 20억 2000만원에서 47억원으로 올라 예산 확보가 어려웠다는 것이 남구 설명이다.

무등시장 주차장 또한 이달 중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아직 첫삽도 못 뜬 것으로 드러났다. 이곳 역시 실시설계 결과 당초 예상보다 주차 면수가 적었고, 철거 대상 건물 중 1개 층 세입자가 무단 점거를 하고 있어 지난 4월부터 명도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남구는 이달 중 명도소송을 마무리하고 내년 2월까지 무등시장 주차장을 착공, 8월에 준공할 계획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태국 여성 불법 고용 업주 송치

불법채류중인 태국인 여성 5명을 불법 고용한 30대 마사지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사무소)는 불법채류 중인 태국인 여성 5명을 불법 취업시킨 혐의(불법고용)로 마사지 업주 A(38)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 했다고 12일 밝혔다.

불법취업한 태국인 여성 5명은 지난 2019년부터 관광비자(B-1)로 한국에 들어와 불법채류를 한 것으로 확인돼 모두 강제추출조치 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1년여 간 광주시 광산구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인 여성 5수명을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무소는 불법 고용 의심 신고가 접수돼 한 차례 단속을 시도 했으나 A씨가 출입문을 잠근 채 단속을 거부하자 지난해 30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재차 단속에 나섰다. 2번째 단속에서도 압수수색영장 집행은 거부했지만, 경찰과 소방당국의 협조로 강제 개방해 현장을 점검했다.

단속 결과 불법취업 중인 태국인 여성 5명을 적발했고, 마사지 업소는 철저히 예약제로 운영하면서 영업 중에도 출입문을 잠그고 입구에 설치한 CCTV 등을 통해 예약 손님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확인 됐다. /정병호 기자 jusbh@

공영주차장 한가운데 집 한 채 덩그러니...왜?

법원 앞 39면 조성 목표 추진 "부모님 모시고 오래 살아온 집" 소유자, 동구 매각 제안 거절 집 그대로 두고 기형적 조성 주차 면수도 33면으로 줄어



광주시 동구 '지산동 공영주차장'에 집 한채가 12일 덩그러니 자리잡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 동구 지산동 공영주차장법원 앞 공영주차장 한 가운데 주택 한 채가 자리잡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 동구는 지난 9월 지산동에 공영주차장을 개장 운영중이다. 문제는 공영주차장 한가운데 덩그러니 자리잡고 있는 주택이 있다는 점이다.

동구는 지난 2019년부터 지산동 법원·검찰청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면수 39면 조성을 목표로 공영주차장을 준비해왔다.

총 10필지에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아래 주차장 부지에 살고있는 소유주들에게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보상금과 이사비용 등에 따른 손실보상까지 지급하며 부지를 매입해 나갔다. 2019년 10월에 6필지, 지난해 9월까지 추가 3필지를 매입해 총 9필지를 매입했지만, 주차장 한가운데 주택을 가진 A씨가 팔지 않기로 해 주차장 조성은 미뤄졌다.

A씨는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단계부터 집을 팔 의사가 없음을 밝혔지만, 동구는 계속 A씨 설득에 나섰다 결국 실패했다.

A씨는 "부모님을 모시고 이 집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절대로 팔지 않겠다"고 동구의 제안을 모두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구는 결국 지난 9월 A씨의 집을 제외하고 매입한 부지에 주차장을 완공했다. 법원 확장공사 등으로 심각해진 지산동 인근 주차난을 더이

상 방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A씨의 집이 빠지면서 주차 면수도 계획보다 6면 줄어 33면으로 조성됐다.

동구 관계자는 "이상한 모습으로 주차장이 완공돼 안타깝지만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겸직 통해 영리행위...전남대 교수 해임 정당"

광주고법 제1행정부 판결

겸직을 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고액을 챙겼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남대 교수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전남대 교수 A씨가 전남대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A교수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취소한다고 12일 밝혔다.

2007년 공과대 교수로 승진 임용된 A교수는 지난 2019년 진행된 감사원의 특정감사에서 '겸직·영리행위 금지 의무 위반 및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의 사유로 적발됐다.

이에 전남대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2020년 10월 A교수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고 11월 말 해임 처분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A교수가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2009년 배우자 명의 주식회사를 설립 실질적으로 운영한 점, 2017년 무보수로 겸직허가를 받고 대표이사로 취임했음에도 2018년 1억99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점, 제자를 대표이사로 세워 회사를 설립해 실질적으로 운영한 점 등을 고려해 해임을 의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2018년 받은 돈은 급여가 아닌 사례금 또는 자문료 명목이었고, 설립한 회사에 실질적 운영을 한 적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해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교수가 받은 돈에 대해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자문료 또는 사례금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만,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징계 양형에 관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로 보고 위법한 처분이다"며 해임을 취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겸직을 통해 자신 및 가족 등의 명의로 거액의 금전을 취득하는 등 국립대 교수의 지위를 자신의 영리적 사업에 이용한 점,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징계위원회 처분은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갯바위 낚시하던 50대 실종 목포해경 이틀째 수색 작업

신안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50대 남성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

목포해경은 지난 11일 오후 2시 20분께 신안군 가거도에서 50대 남성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해 이틀째 수색작업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가 11일 오전 9시 30분 낚시를 하러 민박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자 민박집 주인이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양에서 낚시를 하러 온 A씨는 홀로 신안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수색작업중 갯바위 인근에서 A씨의 짐으로 추정되는 낚시대 등을 발견하고, A씨가 바다에 빠진것으로 보고 수색작업을 진행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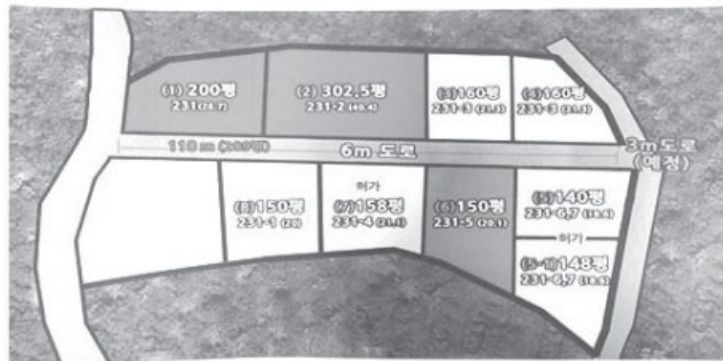
/전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장성토지 매매 (분양)

- ▶ 장성댐 5분 (광주에서 20분)
- ▶ 즉시 건축 가능 (토목공사 완료)
- ▶ 공기최고 (축사없음), 소나무 숲
- ▶ 장성댐, 등산로 (남동향)
- 100평, 150평, 200평, 700평 (분할 가능)



해누리 전원토지분양 (상오2안)



010-6670-9800

경매교육 [특수 전문반]

* 경매 실전 전문반 모집 (10명)

-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 2) 중급반 (실전부터 ~)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 경매 물건 추천 ◀

북구 두암동 (상가주택) ▶	감정가 3억9천 → 최저가 3억9천
남구 임암동 (근린상가)2층 ▶	감정가 5억1,600만 → 최저가 2억8,800만
서구 매월동 (자동차상가 7층) ▶	감정가 6억2,600 → 최저가 2억4,380
광산구우산동 (근린상가)2층 ▶	감정가 6억1,700 → 최저가 2억7,600
광산구소촌동 (대지 41평) ▶	감정가 6억5,400 → 최저가 6억5,400
북구우산동 (주택) ▶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8천300만
서구화정동 (주택) ▶	감정가 1억8,500억 → 최저가 1억2,900
북구운암동 (아파트)박산블루 ▶	감정가 5억7,700억 → 최저가 3억2,300

010-2614-9801